경인양행, 자사주식 18억원 신탁계약

경인양행은 주가 안정을 위해 신한은행과 18억원 상당의 자사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6워20일 공시했다. 계약기간은 2006년 6월까지 1년간이며 주문위탁 증권사는 SK증권, 대우증권, 메리츠증권이다.

<화학저널 2005/06/21>

Copyright ⓒ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